

# 광산구, 광주송정역 광장 5·18 사적지 지정 추진

광주시에 신청서 제출  
80년 시위 군중 모인 장소  
토론회·자료수집 등 노력

광주송정역 광장이 5·18 사적지로 지정 추진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광장을 5·18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광장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송정역 광장은 1980년 5월 22일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시위 군중이 모

였던 장소다.

광산구는 지난 2021년부터 광주송정역을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 5·18 사적지 지정 관련 토론회와 포럼,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5·18 사적지는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지로 최종 지정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송정역 광장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역사적인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송정역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

했다. 한편 광주 내 5·18 사적지는 동구 15곳, 서구 6곳, 남구 3곳, 북구 5곳이 있다. 김상철 기자



세대 아우르는 상권 만든다  
남구, 사업비 8000만원 투입  
사적동에 야외 버스킹장 조성

광주광역시 남구가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성지인 사직동 통기타 거리를 X세대와 MZ세대를 아우르는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시비와 구비 등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음악 중심의 골목상권 성공모델 창출에 나선다.

구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통기타 거리 상인들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협업체를 구성한 뒤 X세대와 MZ세대 음악인 간 상생 발전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체험하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또한 통기타 거리에 X세대와 MZ세대 협업을 위한 야외 버스킹 공연장을 만들고, 평일과 주말에도 버스킹을 상시로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비어 있는 상가 2곳을 청년 점포로 유치해 연간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사직동 통기타 거리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광주 시민을 비롯해 광주를 찾는 타지인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통기타 거리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음악인이 상생하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사직동 일대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행정사무감사 대비 역량강화 교육  
북구의회, 질의기법·사례 중심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로 마련됐다.

지방의회 분야 전문가인 박순중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절차, 효과적인 질의기법과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감사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학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무송 북구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해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사·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분석력이 더욱 강화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제3회 책갈피 그리기 대회’  
서구, 5·18역사공원에서 성료  
민주항쟁 상·연대의식 고취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오월의 의미를 되새기고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 서구는 지난 10일 5·18 역사공원에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개최한 ‘제3회 책갈피 그리기 대회’가 진행됐다고 11일 밝혔다.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5·18단체, 자원봉사자, 주민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책갈피 그리기’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5·18을 주제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그림을 책갈피에 표현했다.

이러한 ‘5·18 주먹밥 만들기’ 체험에서는 당시의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며, 역사적 의미를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된 ‘5·18 들머리’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개요와 박용준 열사의 삶, 주요 사적지에 대한 해설, 추모 리본 달기 등을 통해 오월의 의미를 상기했다.

김승휘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많은 시민이 5·18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동체 정신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도 “오월정신이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10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서구청장배 생활체육 즐넉기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 동구, ‘오월, 종이로 빛은 시간’ 기획전 나서

12일부터 미로센터 1층 전시실서  
“함께 기억하는 따뜻한 오월 되길”

광주광역시 동구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기획전시를 선보인다.

광주 동구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미로센터 1층 전시실에서 ‘오월, 종이로 빛은 시간’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린 시민 워크숍의 결과물로, 시민 작가들이 직접 만든 종이 인형과 신발 등 24점의 작품과 함께 엄정에 작가의 개인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운동화, 고무신, 꽃신 등 다양한 신발



은 1980년 5월의 거리를 떠올리게 하고, 종이 인형은 영령을 위로하는 존재로 표현

했다. 작품들은 창작물과 기록을 엮어 내며 그날의 아픔과 희생을 추모하고, 기억의 의미를 되살렸다.

전시에 참여한 엄정에 작가는 “종이 인형은 5·18 영령을 보살피는 존재고, 풀칠은 시간을 이어 붙이는 행위”라며 “그날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정성을 담았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동구 문화예술체육과로 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전시가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 기억하는 따뜻한 오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 광산소방, 의용소방대원 29명 모집

23일까지 주민 대상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이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

광산소방은 오는 23일까지 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 29명을 공개 모

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며,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예방수칙, 안전 캠페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 조직이다. 지원 자격은 광주광역시 시민으로서 광산구 관내 거주

또는 상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중 희망자로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소방기술 관련 자격 등 전문능력 소지자는 우선 자격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산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철 기자

